濟州島 神話와 儀禮形式에서 본 文化의 系統

玄 容 駿*

目 次

1. 序 言
2. 天降神과 그 儀禮形式
3. 大地湧出神과 儀禮形式
4. 바다로부터의 來訪神과 그 儀禮形式
5. 結 語

1. 序 言

神話와 儀禮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옛 모습을 남긴다. 이것들은 古代의 문화전파와 더불어 민족간에 전파 수용되고, 그 지역에 적응토록 變容되면서 古代的 모습을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神話와 儀禮形式의 전파 계통을 탐구하는 것은 그 문화의 계통을 알아내는 한 작업이 된다.

이 글은 이런 견지에서 제주도 巫俗神話와 그 의례형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그 전파 계통을 찾아 봄으로써 제주도의 문화계통에 접근하려 한다.

제주도의 巫俗神話나 儀禮에 道教·佛教·儒教 등 색채의 것이 많이 보이나 이런 것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그것들은 후대에 中國文化의 전파 영향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巫俗의 神을 흔히 1만 8천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多神多靈임을 말하

* 제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는 것이다. 이 많은 신을 분류할 경우, 여러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文化의 系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神話에 의하여 神들의 出現形式이란 면에서 나누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나눌 경우, 제주도의 巫神은 세 가지 群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하늘에서 下降해 온 神들이고, 둘째는 大地로부터 湧出한 神들이며, 셋째는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來訪한 神들이다. 이들 세가지 神群에 대하여 儀禮形式도 각각 對應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天降神과 그 儀禮形式

먼저 하늘에서 下降하는 神부터 보자.

朝天邑 臥山里의 불도당신은 본래 옥황상제의 막내딸이었는데, 불효죄로 추방되어 와산리 당오름 꼭대기에 내려와 바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産育神이 되었다 하고, 제주시 삼도동의 각시당神은 옥황상제의 막내딸인데, 부모의 지시를 어겨 宮女들을 굶겨 죽인 죄로 추방되어 삼도동의 청대밭에 내려와 堂神이 되었다 한다. 제주시의 海安洞의 堂神은 대별왕, 吾登洞의 당신은 소별왕인데, 이 神들은 형제로서 본래 天界의 천지왕 아들이었다. 어느 해 9월 8일에 인간세계를 구경하러 내려와 보니, 벼가 제일 진기하게 생각되어 그 이삭을 따서 몇 알 맛을 보고 돌아갔는데, 부친이 인간의 음식을 먹어 인간 냄새가 난다고 하영 추방하므로 형은 해안동 강구물동산에 내려와 당신이 되고, 아우는 오등동 섯머세에 내려와 당신이 되었다 한다.

제주도의 巫神들은 옥황상제를 최고신으로 하여 一般神들은 거의 天上界의 神으로 되어 있지만, 部落神인 堂神은 하늘에서 내려온 神이 그다지 많지 않고 중요시되고 있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위의 예시와 같이 天上界에서 내려온 神이 점점이 보인다. 그 특징은 天上界의 규범을 어겨 추방되고, 地上의 山岳·언덕·樹林 등에 下降하여 堂神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늘에서 下降하는 神의 이야기는 한국의 文獻神話에도 많이 보인다. 檀君神話에서는 天帝의 庶子 桓雄이 太白山 꼭대기의 神檀樹 밑에 내려와 神市를 베풀고 있고, 駕洛國의 시조 首露는 金合子에 담겨 龜旨峯 위에 내려오고 있으며 新羅 시조 朴赫居世는 紫卵의 형태로 楊山 밑에 하강하고 있다.

또 新羅 六村의 시조들도 각각 하늘에서 산봉우리 위에 하강하였고, 신라의 金閼智는 黃金 궤속에 담겨 月令 西里의 始林에 하강했으며 北扶餘의 解慕漱는 五龍車에 타서 강림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天上界에서 神이 地上의 山岳·樹林 등에 강림하여 제주도의 경우와 같다. 이 山岳·樹林은 宇宙 중심의 神聖山, 宇宙木의 관념을 표현한 것이라 보인다. 이러한 神話는 한국뿐 아니라 日本의 天孫降臨神話, 터어키系, 퉁구스系 등 북방 아시아 민족에 널리 보이는 降臨型 神話 등 널리 분포되어 있으니, 제주도의 降臨型 神話는 한반도를 거쳐 북방 아시아의 降臨型 神話에 이어지는 계통의 것이라 보인다.

그러면 이 降臨型 神話와 대응하는 儀禮形式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주도에서는 큰굿을 하려면 심방들이 祭床을 차리고 祭場에 큰대를 세운다. 큰대란 4m 정도의 긴 대를 지면에 세운 것인데, 그 맨 위 꼭대기에는 푸른 잎이 달린 대를 묶어 매고, 그 밑에 푸른 소나무 가지 또는 동백나무 가지를 묶어 매고, 또 神의 식량이라는 쌀자루와 요령을 달아맨다. 그리고 그 밑에 긴 무명의 한쪽 끝을 이 대에 묶어 매고, 다른 한쪽 끝을 집 안까지 끌어가서 祭床에 연결시켜 놓는다. 이 긴 무명을 'ᄃᆞ리'라고 하는데, 神은 이 큰대를 통하여 하강하고, 긴 무명인 'ᄃᆞ리'를 통로로 하여 祭床에 와 좌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면 수심방이 정장하여 小巫가 치는 악기 장단에 맞추어 노래와 춤으로 초감제를 한다. 초감제는 여러 小祭次로 이루어져 여러 시간 걸리지만, 요약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가, 무엇 때문에 굿을 하여 1만 8천神을 모두 청합니다라고 告하고, 神域의 문을 열어 邪를 쫓고 神들을 청하여 祭床에 좌정시킨 후, 祭物을 잡수도록 권하고 소원을 간절히 비는 것이다.

이 儀禮形式의 특징은 큰 대를 통하여 神들을 하강시키고, 긴 무명의 'ᄃᆞ리'를 통하여 祭床에 모셔 앉히는 데에 있다. 곧 神들은 天上世界에 있다가 請神을 하면 큰 대를 통하여 地上으로 降臨하는 셈이 되니, 큰대는 天上世界와 地上世界를 연결하는 宇宙木이 되는 셈이다. 天上界의 神이 宇宙木을 통하여 地上界로 하강한다는 발상은 우주가 天上界·地上界·地下界와 같이 수직적으로 구조되어 있다는 垂直的 宇宙觀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神도 수직적으로 강림한다는 表象이 생겨 큰대를 통하여 神을 강림시키는 垂直的 降臨型의 儀禮形式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이 儀禮形式이 降臨型 神話와 對應된

다.

垂直的 降臨型의 의례형식은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본토에는 '서낭대', '내림대'라는 긴 대를 부락제에 흔히 쓰는데, 이것은 대 끝에 방울이나 旗類를 달아 맨 것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馬韓의 蘇塗도 같은 것으로 이 대 끝에도 방울을 달아 매었다 한다. 제주의 큰 대 꼭대기에 푸른 대, 소나무 가지, 동백나무 가지 등을 묶어 맨 것은 살아 있는 神木을 상징한 것이겠는데, 神木은 한국 본토에는 물론 日本에도 일반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만주에서는 인공적인 神杆을 만들어 세워 제사를 하고, 清나라 궁전의 祭天祭神儀禮에서는 녹나무·소나무·버드나무 神杆을 세웠다. 몽골에는 돌과 흙으로 무더기를 높이 쌓아 나무를 심거나 새 형상의 기둥을 세운 聖所 오보가 있고, 시베리아 샤먼의 행사에는 자작나무를 세운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신령이 사는 곳 또는 祭場으로 되어 있고, 그 神木 또는 神杆을 통하여 神이 강림하거나 샤먼이 昇天하는 것으로 관념되고 있다. 말하자면 宇宙木·世界柱인 것이다.

이러한 神木·神杆을 통하여 神을 강림시키는 의례형식은 降臨型 神話와 같이 그 분포가 넓은 것으로 수직적 우주관이 발달해 있는 북방 샤머니즘의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임은 이미 여러 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의 수직적 강림형의 의례형식도 북방계통의 같은 신앙의 소산이라 해야 한다.

3. 大地湧出神과 그 儀禮形式

제주도의 神話 중 大地에서 湧出하는 신화로서 널리 알려진 것은 三姓始祖神話다. 세 神人이 毛興穴에서 湧出하여 수렵생활을 하는데, 돌함에 담겨 동해변에 떠 온 세 처녀와 결혼하여 농경생활로 정착했다는 이야기다. 이 신화는 男神의 地中湧出과 女神의 海上漂着要素가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화는 지금도 도내 각 마을의 堂神話에 전승되는 것이 많다.

舊左邑 松堂里의 男神 소천국은 송당리 고부니므루에서 솟아나 수렵생활을 하다가 강남천자국의 백모래밭에서 솟아난 女神 백줏도를 맞이하여 부부가 되고, 妻神의 권유로 농사짓기를 했다.

西歸浦市 好近洞의 堂神은 男神인데, 한라산에서 乙丑 3월 13일 子時에 솟아나고 사냥을 하여 고기를 먹으며 호근동까지 내려와 당신이 되었다.

安德面 沙溪里의 큰물당신은 한라산 섯어깨에서 솟아나 노루 사슴을 몰아 산방산까지 와서 잡아먹고 사계리 당신이 되었고, 舊左邑 細花里의 당신 천즛도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난 문무겸비한 男神이다.

西歸浦市 甫木洞의 堂神은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나 내려오는 도중, 한라산에서 솟아난 백관님,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도원수,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사와 만났다. 네 男神은 바둑을 두어 차지할 마을을 결정하기로 하고 바둑을 두었는데, 보목동의 신이 져서 이 마을을 차지하고, 나머지 세 신은 禮村堂神이 되었다.

너무 길어지므로 例示는 이 정도로 줄이거니와, 대충 말해서 제주도의 堂神 중 男神은 한라산이나 제주도내의 어느 지점에서 용출하고 있고, 女神은 강남천자국, 동해용왕국 등 바다 건너 상상의 나라에서 표착하고 있다. 男神은 본래 수렵을 하고 있었는데, 표착한 女神과 결혼하고, 妻神의 영향으로 농업을 하기 시작하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일찍이 문헌에 수록된 三姓始祖神話와 주요한 당신화의 모티프 결합이 일치한다. 따라서 삼성시조신화는 본래 당신화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데서 大地에서 湧出하는 신들은 제주도 神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인데, 한국 본토나 그 이북 지역에서는 이런 大地湧出의 神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沖繩의 宮古, 八重山, 臺灣 쪽으로 눈을 돌리면 꽤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宮古諸島의 始祖神話에 의하면 上古에 古意角(고이쓰누)이라는 男神이 天神의명을 받아 하늘에서 土砂를 가지고 내려와 바다에 던져 宮古島를 만들고, 姑依玉(고이다마)이라는 女神과 결혼하여 아들 宗達(스다데이)神과 딸 嘉玉(요시다마)神을 낳았다. 두 신이 10여세 된 때 땅 속에서 男女神 둘이 출현했다. 이들 중 男神은 붉은 이파리로 몸을 두르고 있었으므로 木莊(기소오)神이라 하고, 女神은 푸른 이파리로 몸을 두르고 있었으므로 草莊(후사소오)神이라 하였다. 古意角, 姑意玉 두 신은 매우 기뻐해서 宗達神과 草莊神을 결혼시키고, 木莊神과 嘉玉神을 결혼시켰는데, 이 두쌍 부부의 아들 딸이 서로 결혼하여 자손이 번창하니, 이들이 宮古諸島의 시조가 되었다.

八重山의 石垣에 전승하는 神話에 따르면 〈아망〉神이 日神의 명을 받아 하늘의 七色다리 위에서 바다에 土石을 던져 넣고 槍矛로 휘저어 섬을 만들고, 사람의 씨를 땅 구멍에 내려 보내니, 땅속 구멍에서 남녀가 출현했다. 神은 두 사람을 못가에 세우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못을 돌게 하니, 못가를 돌다가 만난 남녀는 포옹하고 부부가 되어 三男二女를 낳고 八重山의 시조가 되었다.

이와 같이 宮古나 八重山에는 天降모티프와 地中出現모티프가 결합하여 남녀 두 신의 地中出現을 이야기하고 있다.

台灣의 부눈族 神話에 따르면, 太古, 〈민동곤〉이라는 곳에 구멍 두 개가 있었는데, 〈루루핫스루〉라는 벌레가 똥을 둥글게 해서 그 구멍에 집어 넣으니, 15일쯤 지나서 한쪽 구멍에서 남자가 출현하고 다른 구멍에서 여자가 출현했다. 두 사람이 성장하여 부부가 되고 4남매를 낳았는데, 그들이 서로 결혼하여 인간이 불어났다고 한다.

台灣에는 다일아족, 아미족 등 소수민족에 이와 같은 大地出現始祖神話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佐山, 大西의 『生蕃傳說集』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도 20余話가 된다. 그 특징은 地中 또는 巨岩 속에서 남녀가 출현하는 점이 일반적이다. 大林太良의 연구에 의하면 이 地中出現神話要素는 동남아시아 일대에 널리 분포하여 있고, 日本의 神話體系에는 채용되지 않았지만, 九州의 남부에는 그 모티프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상으로 보아 제주도의 大地湧出神들은 沖繩·台灣·東南아시아로 이어지는 계통의 것이라 본다.

그러면 이 地中出現型의 神話와 對應하는 의례형식이 있을 것인가. 제주도의 三姓穴에서는 매해 穴祭(지금은 乾始祭로 改稱)를 지내지만, 儒敎式化해 버려서 그 모티프를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많은 당제에서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도의 堂은 神木 앞에 평평한 自然石으로 제단을 만들고 주위를 돌담으로 두른 型, 동굴 속에 같은 방식의 제단을 만든 型, 建物로 되어 있는 型 등 여러가지다. 건물로 된 것은 근래의 것이고, 原型은 神木이나 동굴 등이다.

그런데, 근래 자연석 제단이 거의 콩크리트화하고 있는데, 특색적인 것은 그 콩크리트 제단에 직경 10㎝ 정도의 구멍을 神의 수대로 地面까지 뚫어서 돌로 뚜껑을 덮고 있는 것이다. 그 구멍을 〈궤〉라고 한다. 궤는 동굴을 뜻하

는 제주 방언이기도 하다. 당에 기원하러 간 때에는 제물을 이 제단에 올리고, 심방이 그 앞에 앉아서 "상궤문도 열립서, 중궤문도 열립서, 하궤문도 열립서"라고 말하면서 〈궤〉의 돌 뚜껑을 연다. 그래서 "누가 무슨 때문에 무엇을 기원하러 왔으니, 제물을 받으시고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길게 기원한 후, 쌀점을 쳐 神意를 探知하고, 마지막에 각 제물을 조금씩 끊어 모아 그 구멍 〈궤〉에 집어 넣는다. 그리고는 "상궤문도 더끕니다. 중궤문도 더끕니다. 하궤문도 더끕니다" 하면서 궤의 돌 뚜껑을 덮어 의례를 끝낸다.

이 의례방식은 地面으로 통한 구멍 곧 궤를 열어 神을 청하고, 제물을 그 구멍으로 地面에 통하게 넣어 神을 대접하고 神을 구멍을 통하여 地中으로 보내어 뚜껑을 닫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의례방식은 地中에 神들이 있다는 表象의 의례형식으로 大地湧出神話와 對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일 이 추정이 맞는 것이라면 大地湧出神話의 분포지역인 沖繩·台灣·東南아시아로 이와 유사한 의례형식이 분포되어 있을 법한 것인데, 寡聞한 필자는 아직 이런 정보에 접한 바 없다. 종교민속학적 조사 보고가 의례의 세세한 부분의 서술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본다. 설사 이런 의례형식이 주변민족에서 발견 못한다 하더라도 大地湧出神話가 남방으로 이어지는 계통의 것임은 부정할 수가 없다.

4. 바다로부터의 來訪神과 그 儀禮形式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 三姓始祖神話의 男神은 大地에서 湧出하고 있고, 女神은 五穀의 씨·송아지·망아지 등을 가지고 나무함 속의 돌함에 담겨 표착하고 있다. 「高麗史」에는 이 女神을 日本國의 처녀라 하고, 「瀛洲誌」에는 東海碧浪國의 처녀라 하고 있다. 日本國이라 한 것은 地理的 比定이고, 東海碧浪國은 동해 저쪽의 상상의 나라다. 이 女神은 결국 바다로부터의 來訪神이다.

이러한 來訪神은 도내의 堂神 중에도 많이 나타난다.

舊左邑 金寧里의 궤내깃당神은 송당신의 여섯째 아들인데, 어렸을 때 불효한 짓을 하므로 돌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렸다. 돌함은 동해용왕국에 표착

하고, 이 아들은 동해용왕의 막내딸과 결혼했는데, 동해용왕은 食性이 과다하다 하여 사위와 딸을 돌함에 담아 띄워 버렸다. 돌함은 제주도에 표착하고, 부부는 나중에 김녕 궤내깃당신이 되었다. 돌함에 담겨 표착하는 신의 이야기는 舊左邑 月汀本鄕堂, 表善面 新豊·下川本鄕堂, 西歸浦市 中文本鄕堂神 등에 많이 보인다. 이 女神들도 바다 저쪽으로부터의 來訪神이다.

제주도에서 來訪神으로서 어느 신보다도 현저한 것은 영등神이다. 이 신은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백이섬에서 來訪하는 女神인데, 음력 2월 초하룻날 제주도를 찾아와 섬을 돌면서 미역·전복·소라 등 해녀 採取物의 씨를 뿌려 풍요를 주고, 2월 보름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도내의 어촌에서는 2월 초하루에 영등환영제를, 2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영등송별제를 한다. 이를 영등굿이라 한다.

제주의 來訪神들은 돌함·나무함에 담겨 표착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한국 본토의 남해안 일대에도 분포하고 있었던 듯하다. 駕洛國의 首露王妃 許黃玉의 표착, 新羅의 脫解王 표착신화가 그 좋은 예다. 許王后는 阿踰陀國에서 비단돛을 단 화려한 배를 타서 건너온 것으로 되어 있고, 脫解王은 龍城國에서 붉은 용이 호위하는 배를 타서 건너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阿踰陀國이나 龍城國은 본래 동해용왕국이나 碧浪國처럼 상상의 나라, 이상의 나라이겠고, 비단돛을 단 배, 붉은 용이 호위하는 배 등은 후대의 美化된 표현이라 볼 것이다. 결국, 三姓始祖神話의 세 처녀 표착과 같은 유형이 된다.

이 유형의 傳承은 日本의 對馬島, 九州一帶, 沖繩, 台灣으로 이어진다. 예를 몇개 보면 對馬島主 宗氏의 조상은 安德天皇이라 전하는데, 天皇이 對馬島에 건너올 때 나무상자에 담겨서 표착했다고 하고, 沖繩의 宮古島 大浦部落의 始祖神話에는 〈우부라다시〉〈마지루우마〉 男妹神이 계모와의 사이가 나빠 부모 눈에 거슬리므로 부친이 상자를 만들어 男妹를 담고 바다에 띄워 버리니, 얼마없이 大浦灣에 표착하여 정착했는데, 이 男妹神이 大浦部落의 시조라 전한다. 台灣의 高砂族 퓨마族 知本社의 전승에 따르면 대 속에서 출생한 始祖 〈파구마라이〉의 5대손녀에 〈루구나우〉라는 절세미인이 있었는데, 결혼하면 남편이 죽고 죽고 하여 세 번이나 개가했다. 어머니는 딸이 육체적 결함이 있음을 알고 상자에 딸을 담아서 卑南溪에 띄워 버리니, 상자는 흘러서 知本社

에 표착했다. 知本社 頭目이 상자 속의 미인을 맞아 연유를 듣고 음부에 이가 있음을 알아 제거하고 부부가 되었다 한다.

三品彰英에 의하면 이와 같은 箱舟漂着神話는 한국 남부, 발해연안, 對馬島, 台灣, 支那海沿岸, 필리핀, 安南의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타는 배는 棺, 나무함, 돌함, 배, 함지박, 獨木舟, 멧목 등이고, 표착하는 神人은 여성이 일반이며, 台灣 쪽에는 남녀가 많다고 한다.

이로써 보건대, 女神이 돌함에 담겨 표착한다는 제주의 來訪神 이야기는 沖繩, 台灣,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箱舟漂着型神話와 같은 계열이며, 그것이 한국 본토의 남해안까지 전파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來訪神 神話에 대응하는 의례형식을 보기로 하자. 그 의례의 대표적인 것은 영등굿이다. 영등굿은 여러 가지 祭次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심적인 祭次는 요왕맞이, 씨드림, 배방선 등이다.

요왕맞이는 용왕과 영등신을 맞아들이며 기원하는 祭次다. 그 맞아들이는 방식에 특색이 있으니, 그것을 잠깐 보기로 한다. 심방은 먼저 제단 앞에 1m 정도의 대를 한 줄에 10본씩 두 줄에 마주 세워서 그 사이의 길을 神이 來臨하는 길이라 한다. 그래서 그 길을 다음과 같이 치워 닦는다.

①신이 오는 길을 돌아본다. ② 돌아보니 해초가 무성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베어 넘긴다. ③ 베어 넘긴 해초를 작대기로 치운다. ④ 해초의 뿌리를 따비로 판다. ⑤ 그 地面을 발로 밟아 평평하게 한다. ⑥ 구르는 돌맹이를 삼태기로 치운다. ⑦ 울퉁불퉁한 지면을 미레깃대로 밀어 고른다. ⑧ 먼지를 비로 쓴다. ⑨ 물을 뿌린다. ⑩ 물이 지나치게 뿌려진 데에 띠를 깐다. ⑪ 띠 위에 나비를 날린다. ⑫ 그 위에 신이 밟아 건너올 다리를 놓는다 하여 무명을 깐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바닷길을 치워 닦아 용왕과 영등신을 맞이하여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다. 이 길닦이는 陸上의 길닦이를 바닷길로 轉移시킨 것이지만, 神은 水平的인 길을 통하여 來臨한다는 觀念에서 이루어진 儀禮方式이요, 水平的 宇宙觀에 기초를 둔 것이다. 따라서 水平的 來臨型 儀禮形式이라 할 만하다.

다음, 씨드림은 요왕맞이가 끝난 후, 미역, 전복, 소라 등의 씨를 뿌리는 의미로 좁씨를 바다 여기 저기에 뿌려 해녀 採取物의 풍요를 기도하는 것이다.

씨드림이 끝난 후, 제장에 돌아와 돗자리 위에 좁씨를 뿌리고, 그 밀도를 보아 풍요여하를 예언하는 씨점을 한다. 씨점이 끝나면 굿은 막판이 되어 배방선을 한다. 배방선은 제단 위의 제물을 조금씩 작은 짚배에 싣고, 그 짚배를 어선에 태워서 바다 멀리 나아가 짚배를 띄워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영등신을 바다 건너 본국으로 보내는 행사다. 水平的으로 來臨한 신이니, 역시 수평적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 배방선은 근래에는 1척만 짚배를 만들어 띄워 보내고 있지만, 약 60년 전까지는 참가자의 각 가호마다 짚배를 1척씩 만들어 와서 각자가 띄워 보냈다. 당시는 어선이 떼배였으므로 배방선 때가 되면 각자가 제물을 자기의 짚배에 싣고, 그 짚배를 각각 자기의 떼배에 실어 출발을 기다린다. 심방이 출발신호를 하면 일제히 노저어 앞다투어 나가고, 짚배를 놓을 곳까지 선두의 떼배가 도착하면 심방의 신호로 다 정지하여 짚배를 띄어 보냈다. 이 競漕에서 1등 한 자는 영등신을 맨먼저 치송한 셈이 되므로 그 해에 풍요를 얻는다 하여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이 競漕行事가 躍馬戱인 것이다.

神을 바다 건너에서 수평적으로 맞이하여 위하고 보내는 儀禮形式은 沖繩에 특히 현저하다. 沖繩에는 〈니라이·카나이〉 신앙이 발달해 있는데, 이 〈니라이·카나이〉는 바다 건너의 樂土 내지 神國으로, 여기에서 神이 일정기간에 來訪하여 福利를 주고 돌아간다고 믿는다. 또 불·법씨 등 중요한 文化나 주민의 元祖도 이 〈니라이·카나이〉에서 건너 왔고, 사람들도 死後 여기로 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祭日에는 〈노로〉를 선두로 神女들이 행렬을 지어 배를 타고 오는 니라이·카나이의 神을 맞이하여 풍요를 예축하는 沖繩의 〈운자미(海神祭)〉, 八重山의 〈부우루(豊年祭)〉 등에서 눈에 안 보이는 배를 타고 오는 이 神을 맞이하는 의미로 競漕行事를 벌이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競漕行事를 〈하아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은 한 마을을 두 편으로 나누어 바다 저쪽에서 해안 쪽으로 노 저어 경주하는 곳이 많으며 이기는 편이 풍요를 얻는다고 한다. 이 競漕行事는 제주도 영등굿 때의 競漕行事와 통하는 바 있는데, 이러한 競漕民俗은 日本의 對馬島, 壹岐島, 九州 일대에 〈후나고로〉 등의 이름으로 分布하고 있고, 남쪽으로 가면 沖繩을 거쳐 南中國, 동남아시아로 이어진다. 南中國, 동남아시아로 가면 이를 〈爬龍船〉이라 하여 용의 형태로 배를 장식하여 競漕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 競漕民俗이 있는 것이 엉뚱한 일이 아님은 『三國遺事』 卷二 駕洛國記의 '戲樂思慕之事'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보면 건장한 남자들이 左右편으로 나누어 望山島에서 古浦까지 배를 노저어 경주를 하는데, 이는 留天干, 神鬼干 등이 許王后를 맞이할 때의 神話的 사실을 재연한 競漕行事다. 이로써 보면 바다로부터의 來訪神話의 분포와 競漕民俗의 분포가 일치하여 한국 본토의 남해안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水平的 來臨型 儀禮形式은 來訪神話와 같이 沖繩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남방계통이라 보아야 한다.

5. 結　　語

이상, 제주도의 神들을 天降神, 大地湧出神, 바다로부터의 來訪神으로 나누고, 그 神話와 儀禮形式이 對應함을 살피면서 그 계통을 추적했다. 天降神話와 그 의례방식은 북방아시아로부터 한반도를 거쳐 流入한 것으로, 大地湧出神話, 바다로부터의 來訪神話와 그에 대응하는 의례방식은 동남아시아로부터 沖繩을 거쳐 流入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神話와 의례형식이 남·북방 계통의 것이 융합되어 있는 사실은 제주도가 남방문화와 북방문화의 교차지점임을 말해주는 한 근거가 된다.

主要參考文獻

一　然, 「三國遺事」

玄 容 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 「濟州島巫俗研究」, 集文堂, 1986.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 大阪屋號書店, 1938.

————————, 「滿蒙の民族と宗教」, 大阪屋號書店, 1941.

崔 吉 城, 「韓國巫俗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78.

金 泰 坤,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1981.

張 籌 根, 「韓國の民間信仰」, 金花社, 1973.

櫻井德太郎, 「沖繩のシヤマニズム」, 弘文堂, 1973.

————, 「日本のシヤマニズム」, 吉川弘文館, 1974.

朴藤時彦 外編, 「沖繩文化論叢」2, 平凡社, 1971.

日本民族學會編, 「沖繩の民族學的研究」, 民族學振興會, 1973.

石橋丑雄, 「北平の薩滿教に就いて」, 外務省文化事業部, 1933.

佐山融吉・大西吉壽, 「生蕃傳説集」, 台北 杉田重藏書店, 1923.

三品彰英, 「神話と文化史」, 平凡社, 1972.

伊藤幹治, 「沖繩の宗教人類學」, 弘文堂, 1980.

木林太良, 「日本神話の起源」, 角川書店, 1961.

M. Mikhailowski, 高橋勝之譯, 「シベリヤ・蒙古及び歐露の異民族間における
シニマン教」, 「東亞論叢」3, 文求堂書店, 1939.

D. Banzaroff, 白鳥庫吉譯, 「黑教或ひは蒙古人や於けるシヤマン教」,
「シヤマニズム」, 新時代社, 1971.

金 九 經, 「重訂 滿洲祭神祭天典禮」, 薈園精舍, 康德元年.

M. Eliade, 掘一郎譯, 「シヤマニズム」, 冬樹社, 1974.